

포천사회 知識人 ④

경북대학 김기준 교수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을 합리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

“大學 보유 기술 포천의 지식기술로 활용해야”

“제품 자체를 장난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먼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하여 미래형 토이디자인이라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포천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싶다.”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김기준(53·사진) 교수는 기아자동차에서 9년 동안 칼라리스트로 자동차의 실내디자인과 스타일링 과장, 인테리어 과장 등을 역임하고 1992년 경북대학 개교와 더불어 부임했다.

김 교수는 포항시 북구 신광초등학교, 포항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에서 공업디자인 학사 취득 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제품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교수가 전공한 분야는 공업, 제품, 가구, 자동차, 3D컴퓨터그래픽디자인이며 현재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에게 입체 디자인, 디자인론, 포토그래피, 상품디자인, 3D Max, 포트폴리오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디자인부 과장으로 프라이드, 세피아, 스포티지, 베스타, 복서, 라이노 인테리어 및 기타 차종 모델링, 선도, 색채를 담당했으며 한국타이어 중앙기술연구소 제품설계부에서도 타이어 패턴 및 로고 7종을 디자인한 경력이 있다.

전공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을 합리적인 형태와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서 경제적이고 심미성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넓은 의미로는 공업디자인, 좁은 의미로는 제품디자인이며 현재는 디지털산업디자인이 크게 성장해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모든 것은 손으로 그리고 만들고 생산하고 대량 생산에만 기계로 사용했는데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과정을 컴퓨터응용기술로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스피드 디자인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소비자나 시장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계에서는 50% 이상의 수작업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이미 경험 있는 세대가 수작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존해야 한다.

감성을 원하는 제품은 수작업, 기능과



이미지를 요구하는 작업은 디지털화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리더쉽과 코디네이터 능력,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 등을 요구한다. 화합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쉽을 갖추어야 하며 통하면서도 섭렵할 수 있는 통섭능력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코디네이터 능력이다.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적극적으로 못하면 퇴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다면 금상첨화다. ‘역지사지’다. 서비스 정신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경북대학에 부임한 이후 포천시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 포천시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미술장식품의 경우, 송우리 아파트단지에 설치되는 작품이 포천시 이미지와 부합되는지와 아파트 경관과 어울리는지, 또 아파트의 기능과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했다.

앞으로 경북대학과 포천시와의 관계에 대해 김 교수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산학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포천의 지식기술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가 경북대학에 부임한 후 추진해 온 연구실적과 프로젝트는 포천시 상진조형물 시안디자인, (주)두산토파스의 사무용탁자약세시리 디자인, (주)선일알미늄의 주방

용기 색채 연구, (주)성민 컴퓨터케이스 디자인, (주)조일조명 가로등(커버) 디자인, (주)성주음향 자동차용 스피커디자인, (주)일원식품 음료용기 라벨디자인, (주)은성전기 스타일라미 디자인, (주)라비더비, (사)대한적출물처리협회 포천지부 의료적출물포장용디자인, 자동차휠(림) 디자인D&C, (주)화덕산업 펌프디자인, (주)삼광조명 조명기구(스탠드) 디자인, (주)승룡전자 무선기디자인 등이다.

KAD(한국산업디자인협회), KDA(경기디자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 교수의 주요 저서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스케치렌더링(학문사, 1997)▶입체디자인(우성시스템출판사, 1995)▶합성성취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2004, 경북논총)▶교육의식에 관한 조사연구(2003, 경북논총)▶교육 효율화에 관한 연구(2001, 경북논총)▶아파트용 수퍼그래픽에 관한 연구(경북논총)▶밀레니엄디자인 경향에 관한 조사연구(1999, 경북논총)▶디자인교육의 자율화 연구(1998, 경북논총)▶디자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998, 경북논총)▶자동차 Styling에 관한 연구(1993, 경북대학)▶Car Interior Design에 관한 연구(1992, (주)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기술학회지)▶Compact car 디자인에 관한 연구(1986,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도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김 교수의 주요 전시경력은 다음과 같다.

▶제7회 경기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전(2002, 안산시 단원전시관 3전시관)▶경기산업디자인전람회초대전(2001, 디자인센터 전시장)▶KDA장림회원초대전(2000, 분당주택공원 주택전시장)▶산업디자인개발 신상품전(1997, COEX 전시실)▶산업디자인 지도상품전(1996, COEX 전시실)▶산업디자인 지도상품전(1996, KIDP 전시장)▶산업디자인 지도상품전(1995, 현대무역센터 백화점)▶산업디자인 지도상품전(1994, 청량리 미도 파백화점)▶IDEA 88전(1988, 대구백화점 전시장)

김 교수는 또 경기중소기업 산학연전소사업 프로젝트(산업기부설계)를 2005년부터 3년째 수행중이며 (주)위너스 콘센트디자인과 (주)세턴 욕실용품디자인도 계획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국제교류센터 건립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 위한 공간 필수

언어교육 청소년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 실시해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 해당된다. 포천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은 섬유나 염색, 가구제조 등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은 국내경기가 악화되면서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배려하고 있는 것은 성공회 포천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보조금 200만원 지원과 가산이주노동자센터가 운영하는 무료급식비 200만원 지원 등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시책교육, 외국인근로자의 날,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등은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포천시 거주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으로 한글교육과 한국어응용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칭)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모두 3곳이다.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12월23일 설립되어 상담실과 콜센터 교육실, 회의실, 음악연습실, 공동체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5개팀 20팀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6억7천200만원이다.

또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총 1천343㎡에 노래방과 컴퓨터실, 한국어실, 공동체모임방, 무료진료소, 강당 등을 갖추고 3개팀 15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11억9천400만원이 소요된다. (가칭)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07년2월23일 설립된 후 현재 건물을 매입중이고 설립비 30억 1천500만원과 연간 운영비는 10억1천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기도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운영중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비롯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등 5곳에서 운영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도비15억과 시비 6억4천300만원 등 총 21억4천300만원을 투자해 대지 778평에 557평 건물에 지하1층 지상4층을 2005년10월 개관해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원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역시 도비와 시비 등으로 2007년3월9일 개관하고 민간단체에 위

탁해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의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올 9월과 11월 준공할 예정이고 화성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2008년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2006년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19만9천538명이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시다. 또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외국인 5.1%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다.

각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거주현황은 안산시 2만4천266명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 1만9천141명, 수원시 1만3천602명, 시흥시 1만3천172명이고 포천시는 8천38명으로 경기도내 11번째다.

포천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산면에 2천3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흘읍 1천571명, 선단동 875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중국인이 1천557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천314명, 베트남 657명 등이다.

2007년1월말 기준 포천시 관내 거주 외국인 중 여성 결혼 이민자 현황은 603명이다. 이중 여자가 510명, 남자가 93명이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한국계 중국인이 202명으로 전체 39.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여성이 112명, 베트남 48명, 필리핀 36명, 타이 35명, 몽골 29명, 일본 21명 등이다.

포천시 거주 탈북자는 2006년12월말 기준 138명으로 남자 47명과 여자 91명이다. 이들중 소흘읍에 130명이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 가운데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85명 그렇지 못한 사람은 53명이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는 73명, 비호보대상은 65명이다.

이들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43명과 자영업 1명을 제외한 94명이 무직상태에 있고, 130명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탈북자들은 생활하는데 언어문제와 의료보험 등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소 늦은 감은 있지만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및 탈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가 집계한 국제교류센터 이용객 수는 등록외국인 8천38명과 결혼이민자 603명, 탈북자 138명, 불법체류자 3천613명 등 1만2천39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포천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터는 294평에 추정사업비 20억8천100만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 상담실과 진료실, 국제교류실, 문화체험실 등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포천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또 기업체들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의료문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를 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의료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여가복지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형 토이디자인으로 포천시 산업 活性化 기대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안병호 대표이사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전기특급 기술자다수 확보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변압기 절연유 실험



▶변압기 부하 점검